



지역차별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광산구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광주시의회, 광산구, 광산구의회, 시민 등과 호남선 KTX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민·정치권 “KTX 호남선 운행 차별 말라”

광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고속열차(KTX) 호남선 운행 차별과 불공정 해소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의회, 5개 자치구, 광산구의회, 시민 등과 함께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KTX 호남선 차별·불공정 해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KTX 운행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들,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KTX 호남선 운행 차별이 극심하다”며 당장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 55회로 경부선이 2배 넘게 많다.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공급 좌석은 경부선이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 3만7573석보다 2.6배 많으며,

주말 증편 경부선 21회-호남선 1회... 운행횟수·좌석 불균형 극심

주말·명절·피크시간 좌석 많은 KTX-1·중련열차 당장 투입 촉구

장기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조속 시행·신형열차 배차 요구

주말에는 경부선과 3배 차이를 벌여준다.

이는 고속열차 운행 배차 횟수뿐만 아니라 차량 규모(좌석수, 신형)에서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 경부선 KTX는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 증편에 그친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시~9시, 오후 5~7시 사이 '피크시간대'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말 증편은 없다.

이로 인한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의 경우 1일 11만7947석(평일대비 1만8946석, 19.1%)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

은 3만8960석(평일대비 1387석, 3.7%)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차량 편성에서도 차별이 드러난다. 경부선은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과 신형인 '정릉'을 집중 투입하는데 비해, 호남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산천'이 투입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말 호남선 KTX는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어서면서 '좌석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정부와 코레일에 당장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등은 실현 가능한 3단계 해법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주말과 명절, 피크시간대 만이라도 좌석이 많은 KTX-1(955석)을 투입하거나 KTX-산천(379석) 열차 2대를 연결(중련열차, 758석) 운행해 좌석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를 수요가 많은 호남고속 열차에 대체 투입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료되는 2028년에 맞춰 호남선 선로용량을 16회 이상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KTX-청룡(515석) 열차를 호남선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선 KTX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이며, 불공정 운행 해소는 국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이다”며 “정부가 호남인들의 절실한 요구에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KTX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기동취재부

양림·동명, 광주 원도심 맛있게 즐기자 광주시, 27일부터 '광주미식주간' 운영

특별신메뉴·빵지순례·커피투어 등 색다른 맛과 재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호남관광문화주간(9월29일~10월17일)에 맞춰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2025 광주미식주간'을 운영한다. '광주 미식관광의 시작: 광주 미식 24h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미식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양림동, 동명동, 광주극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 원도심에서 미식과 역사, 건축,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양림동의 식당과 카페가 참여해 지정 메뉴 할인, 특별 신메뉴 출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지속가능 미식 캠페인에 동참한 로컬계열들이 직접 기획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이 특

징이다. 미식과 관련된 각종 체험과 투어,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양림동과 동명동, 광주극장 일대에서는 ▲이탈리안 모카포트 사용법 ▲스페인 핀초, 뼈야아 시식 클래스 ▲호랑가시나무 쿠키 만들기 체험 ▲전통주와 체절 재료를 활용한 페어링 ▲제철 채소를 활용한 비건요리 만들기 ▲막걸리 빛기 체험 ▲도시농부와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등 7개의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미식주간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는 광주미식주간 홍보포스터의 QR코드 접속 또는 인스타그램 'tasteof_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춘 기자

보성~목포 철도 27일 개통... 목포~부산 2시간 이상 단축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오는 27일 개통하고 본격 운행에 나선다. 국토의 남해안을 따라 서쪽 끝인 목포와 동쪽 끝인 부산 간의 거리는 약 6시간 50분에서 약 4시간40분으로 2시간 이상 줄어들게 됐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목포보성선)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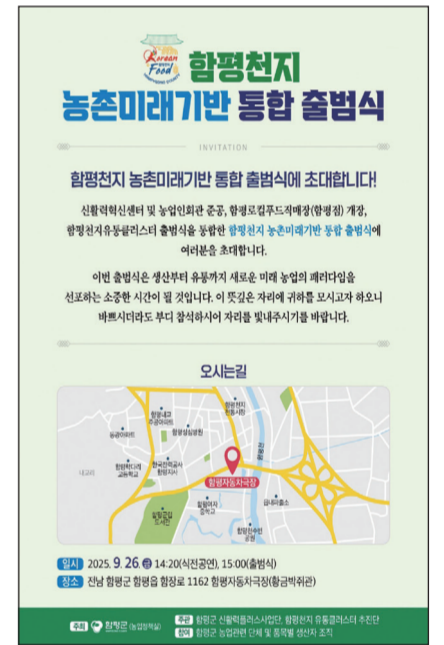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풍을, 장동역은 주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강진역은 청자 가마를, 해남역은 고인돌을,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순천 구간이 현재 비전철 구간임을 고려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한다. 목포~부산(부산)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2회씩 총 4회, 목포~순천 구간은 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등

하루 총 8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목포~부산(부산) 운행 시간은 약 4시간40분이다. 기존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행하는 경로(약 6시간 50분) 대비 2시간 이상 단축된 것이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간 운행 시간도 기존 경로 150분에서 약 65분으로 85분 단축된다. /이승원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